

강성열 교수의 성경을 여는 열쇠, 창세기

2강 천지창조 이야기

1. 창조의 시작 (1:1-2)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성경의 이러한 시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선언하는 효과를 갖는다. 물론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단순히 맨 처음에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를 알려주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달리 말해서 창세기의 첫 부분은 단순히 세상의 시작과 기원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창세기의 이러한 시작 부분은 아웨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참신임을 알리는 신앙고백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 신앙고백은 하나님을 먼저 믿기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웨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신앙고백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신앙고백을 늘 새롭게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1) 창조 신앙의 대헌장

창세기 1장 1절은 2절 이하의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반을 압축하는 성격의 본문이다. 물론 1절의 “하늘과 땅”은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만을 지칭하는 낱말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를 뜻하는 관용어이다(창 2:4; 14:19; 시 115:15; 121:2; 124:8; 134:3; 146:6; 렘야 10:11 등). 따라서 1절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에 널리 알리는 창조 신앙의 대헌장(大憲章)이요, 창조 기사 전체를 이끄는 독립절(獨立節)이다.

또한 1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다: (1) 1절은 이스라엘 주변 세계의 다신교(polytheism) 내지는 자연 종교(nature religion)에 대한 선전포고의 의미를 갖는다. 아웨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1절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은 그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 타자(他者)”라는 얘기다; (3) 1절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기도 한다(참조. 시 121:3-4; 요 5:17). 이 점에 있어서 아웨 하나님은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Yahweh라는 이름 자체가 동사 형태, 곧 “하야”(be, become) 동사의 히필 사역형이라는 것이 그 점을 뒷받침한다. 참고로 히브리어 동사 문장은 대체적으로 동사를 주어보다 먼저 사용한다.

1절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낱말은 ‘바라’라는 동사이다.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낱말로서 일반적으로 “무(無)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외

경(外經) 제2마카비서 7장 28절에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다: “애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느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공동번역). 그리고 신약성경의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롬 4:17);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2) 처음의 혼돈 상황

1장 2절은 하나님의 창조가 본격화될 무렵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 의하면 창조가 이루어질 무렵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사역이 혼돈과 무질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밝히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chaos)로부터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계(cosmos)를 만드셨다는 것이다. [참조. 강성열, <기독교 신앙과 카오스 이론>(대한기독교서회, 2005년): 혼돈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모판)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의 역사 섭리와 동일한 차원에 속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은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고통, 절망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며 은총을 베푸신다. 십자가와 부활도 혼돈으로부터의 구원과 같은 도식에 속한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함에 있어서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은 오늘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준다. 그것은 곧 인간의 삶과 역사 안에 있는 온갖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 있고 조화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 역시 넓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2절 하반절의 “하나님의 영(‘루아흐 엘로힘’)은 수면(水面)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표현 역시 혼돈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New English Bible, Anchor Bible, G. von Rad, C. Westermann 등).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 하나는 문법적으로 볼 때 ‘엘로힘’이라는 보통명사가 형용사의 최상급으로 사용되는 경우(창 23:6; 30:8; 시 36:6; 68:15; 80:10 등)가 자주 있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루아흐’가 헬라어 ‘프뉴마’와 마찬가지로 “바람”을 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보충: ‘엘로힘’의 최상급 용법; 창세기 23:6=“하나님의 방백”(개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새번역), “세력 있는 귀인”(공동번역), “위대한 지도자”(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개역 개정판),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힘과 재산을 주신 분”(현대어 성경), a mighty prince(KJV, NKJV, NEB, NRSV, REB), a mighty leader(GNB).

창세기 30:8=“크게 경쟁하여”(개역과 개역 개정판), “고된 싸움”(현대어 성경), “크게 겨루어서”(새번역), “겨루는데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셔서”(공동번역), “심한 경쟁을 하여”(현대인의 성경), great wrestlings(KJV, NKJV), mighty wrestlings (RSV, NRSV), played a fine trick on(NEB), devised a fine trick against(REB), a hard fight(GNB).

시편 36:6=“하나님의 산들”(개역과 개역 개정판), “웅장한 산맥 즐기”(현대어 성경), “우람한 산 즐기”(새번역, 공동번역), “튼튼한 산”(현대인의 성경, 각주: “하나님의 산들”), mountains of God(RSV), the great mountains(KJV, NKJV), the mighty mountains(NRSV), towering mountains(AB), the lofty mountains(NEB, REB), towering like the mountains(GNB).

시편 68:15=“하나님의 산”(개역과 개역 개정판), “(바산의 산은) 어마어마하구나”(현대어 성경), “거대한 바산의 산들아, 높이 솟은 봉우리가 많은 바산의 산들아”(새번역), “하나님의 산”(공동번역), “바산의 산들은 높고 장엄하구나!”(현대인의 성경), the hill of God(KJV), a mountain of God(NKJV), a hill of God(NEB), a mighty mountain(RSV, NRSV, AB, GNB), a lofty hill(REB).

시편 80:10=“하나님의 백향목”(개역과 개역 개정판, 각주에는 “아름다운 백향목”), “그 가지가 엄청나게 큰 송백”(현대어 성경), “울창한”(새번역, 공동번역), “큰 백향목”(현대인의 성경), the goodly cedars(KJV), the mighty cedars(NKJV, RSV, NRSV, NEB, REB), towering cedars(AB), the giant cedars(GNB).]

이러한 해석은 공동번역에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고(각주: ‘바람, 영, 혼, 열’), 새번역(“하나님의 영”)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새번역의 창세기 1장 2절 각주는 ‘루아흐 엘로힘’을 “하나님의 바람”또는 “강한 바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봄으로써, 1장 2절 전체가 혼돈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 볼 때 아직까지는 이러한 해석보다는 전통적인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루아흐 엘로힘’을 ‘하나님의 산’으로 이해함으로써 1장 2절 후반절부터 혼돈 상황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 창조 활동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다.

[보충: “하나님의 루아흐”: 개역 개정판, “하나님의 영”; REB=the spirit of God hovered over the surface of the water; 각주에는 a great wind swept 또는 a wind from God swept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RSV=the Spirit of God was mov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s; 각주에는 the wind of God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KJV and NKJV=the Spirit of God/ GNB=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바람/강한 바람”: 공동번역=‘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공동번역의 각주는 ‘바람, 영, 혼, 열’이라고도 옮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NEB=a mighty wind that swept over the surface of the waters; 각주에는 the spirit of God hovering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NRSV=a wind from God swept over the face of the waters; 각주에는 the spirit of God 또는 a mighty wind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2. 창조의 과정 (1:3-25)

(1) 창조 과정에 나타난 특징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기 시작한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본격화하는데, 창조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바, 그 말씀은 한결 같이 3인칭 명령형(히브리 문법으로는 Jussiv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서 말한 '바라' 동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창조는 부수적으로 "만들다"는 뜻을 가진 '아사' 동사와 관련하여 나타난다(1:7, 16, 25, 26; 2:2, 3). 말씀을 통한 창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이 곧 사건(Event)이요 행동(Action)임을 뜻한다. 즉 하나님께는 말(imperative)과 행위(indicative)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차원에 속한 것이라는 말이다. 참조. 이규호, <말의 힘>(좋은날, 1998년).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옛새 동안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날에는 빛('오르')이 창조되면서 낮과 밤이 만들어지고(3-5절) 둘째 날에는 궁창(하늘)이 만들어지면서 궁창을 중심으로 하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인다(6-8절). 그리고 셋째 날에는 마른 땅(물)과 바다가 만들어졌으며 땅 위에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등의 각종 식물이 창조되었다(9-13절). 이어 넷째 날에는 해("큰 광명체")와 달("작은 광명체")와 별 등의 광명체("마오르")들이 창조되었으며(14-19절),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사는 각종 물고기들과 하늘을 나는 각종 새들이 창조되었다(20-23절).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사는 각종 짐승들을 창조하시고(24-25절) 이어 사람을 창조하셨다(26-31절).

셋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옛새 동안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옛새 동안의 창조 과정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바,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와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가 대칭 관계에 있음이 금방 드러난다. 이를테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만들어진 것들은 주로 어떤 본질 내지는 생활공간과 관련된 것들이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것들은 주로 그러한 본질로부터 파생한 것들이거나 또는 특정 공간에 거주하는 생물들을 지칭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칭 관계에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넷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일정한 양식을 따라 기록되어 있고 이에 적어도 다섯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들이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하는 도입부(introduction), 3인칭 명령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command), 명령대로 이루어짐(completion), 창조의 결과에 대한 평가(judgment/evaluation), 날의 반복(time sequence)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각 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로서, 이것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가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임을 증거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창조의 결과를 평가하는 표현("보시기에 좋았더라")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모두 일곱 번 사용되고 있으나(4, 10, 12, 18, 21, 25, 31

절), 묘하게도 둘째 날에는 전혀 없고 그 대신에 셋째 날에 두 번씩이나 나타나고 또 여섯째 날에도 두 번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왜 둘째 날에는 창조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고 셋째 날에 두 번의 평가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그 견해가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둘째 날의 사역이 셋째 날 전반부에 가서야 완료되는 까닭에 그러하다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두 번의 평가가 있는 것은 두 번째의 평가(“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하나님의 창조 전체에 대한 총괄 평가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날의 반복을 설명함에 있어서 저녁을 아침보다 앞세우는(“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오늘날의 우리들과는 달리 해가 질 무렵의 저녁 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이다.

(2) 자연 종교의 배경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우주와 세계 안에 있는 질서와 조화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물, 공기, 하늘, 해와 달과 별들 및 각종 동식물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해와 달과 별들은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이 강조되고 있다(14절). 창세기 1장의 이러한 강조점은 이스라엘의 창조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서는 자연 세계에 있는 각종 피조물들을 신적인 존재로 보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른바 자연 종교(Nature Religion)의 다신교(多神教; polytheism)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창조 신화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이다. 이 신화에 의하면 맨 처음에 담수(淡水; sweet water)와 염수(鹽水; salt water)를 상징하는 압수(Apsu) 신과 티아맛(Tiamat) 여신 사이에서 수증기(또는 안개), 하늘, 공기, 폭풍 등을 상징하는 여러 신들이 출생한다. 그리고 이들 신들 사이에 벌어지는 왕권 다툼의 과정에서 압수와 티아맛은 죽고 마르둑(Marduk)이 승리를 거둔 후 최고신의 자리를 차지한다.

최고신이 된 마르둑은 죽은 티아맛의 몸을 두 쪽으로 나누어 그것으로 하늘과 땅을 만들고 티아맛의 두 번째 배우자인 킹구(Kingu)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가지고서 사람을 만든다(장일선, 『구약 세계의 문학』, 303-347쪽을 참조). 이러한 창조 신화는 결국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자연 종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가나안 지역의 경우 우가릿(Ugarit)에서 발견된 바알 신화집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가 폭풍우의 신(storm-god)인 바알(Baal)을 정점으로 하는 농경 사회의 다산(多産)의 종교요,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는 자연 종교의 다신교주의를 그 밑바닥에 깔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종교에서 신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아웨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널리 알림과 아울러 그러한 자연 종교가 갖는 위험성을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바알 종교를 비롯한 각종 자연 종교의 위협에 직면했었고(출 20:3-5; 신 4:16-18; 5:7-9 등) 그러한 자연 종교의 영향을 받아 천체(天體) 숭배에 빠진 적도 적지 않게 있었다(레 26:30; 신 4:19; 왕하 23:5, 11; 사 17:8; 27:9; 겔 6:4, 6; 8:16; 대하 14:5; 33:3; 34:4, 7). 따라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주변 나라들의 자연 종교 내지는 천체 숭배가 다 허황된 것이요,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음을 널리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